

사명: 제자를 늘려라

마태복음 28:16-20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 본당과 커넥션,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끝없는 돌봄과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께 선하심과 은혜를 베푸시며, 평화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니날에 자녀를 데리고 축복 기도를 드리는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을 순종한 것입니다.

창세기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니라.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바칠 때, 부모와 교회 가족 모두 예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제자로 양육하는 데 헌신하게 됩니다. 가족은 제자를 늘려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가족은 제자, 즉 영적인 자녀를 늘립니다. 건강한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듭니다. 오늘 설교는 제자도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요약하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한 3부작 시리즈의 세 번째입니다.

1.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라
2. 가족: 함께 성장하라
3. 사명: 제자를 늘려라

처음 두 메시지를 요약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는 제자도를 두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라.

제자는 구경꾼이나 이용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을까요? 대위임령에 속한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제자를 삼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가서, 세례 주기, 가르치기입니다. 첫째는,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세계적인 비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 움직이지 않으면 제자를 삼을 수 없습니다.

이 시리즈의 두 번째 메시지에서, 빈 목사는 2번째 지표인 세례를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며,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삼위일체 안으로 들어갈 때 동시에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항상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 즉 교회 가족에게 헌신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가족: 함께 성장.

이 세 번째 메시지에서 사명의 우선순위를 다시 살펴보고, 제자를 삼는 교육법을 연구하며, 제자를 삼는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1) 우선순위: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지상 대위임령의 주요 명령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에 초대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만들고, 말과 행실로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민족의 제자들이 영원토록 그분을 예배하게 합니다 (교회 웹사이트에서 사역 철학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그림(DFM 그림)으로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들은 세례를 받아 교회 가족(함께 성장하는 곳)으로 들어가며, 제자를 늘리라는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 윌링던 교인 약 100명이 아웃리치 데이(사진)에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은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잔디밭의 잡초를 제거하고, 집을 페인트칠하고, 데크를 청소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말과 행실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도부는 제가 조용히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세척기를 주면서 버나비에 있는 시더 임신 관리 센터와 연결된 그룹 홈의 데크를 청소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5년 동안 시더 임신 케어 센터(구 위기 임신 센터)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여성들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해 왔습니다. 센터는 따뜻한 지원, 교육, 그리고 임신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데크를 청소하는 동안, 저는 프로그램 디렉터인 카트리나와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십 대 임신 시절, 그 임신 센터의 도움이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두 번째 임신 위기가 있었고 학대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가정 폭력 피해자 여성과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긍휼을 베푸는 또 다른 사역인 윈스 펠로십을 통해 구출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새롭게 찾은 구원자에게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녀와 두 자녀의 삶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계절이 온 것입니다. 카트리나는 현재 시더 임신 관리 센터의 프로그램 디렉터로, 희망을 찾는 취약한 여성들을 제자로 삼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매일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위임령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질문은 "너의 과거가 무엇이었느냐?"가 아닙니다. "너는 얼마나 공부했느냐?", "얼마나 오래 나의 제자였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너는 받은 것을 전하고 있느냐?"입니다.

대위임령의 세 번째 지표인 "가르침"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위한 교육도, 지식을 위한 지식도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2:49-50

49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삶의 방식, 즉 성령으로 잉태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방식에 관심을 두십니다. 올바른 교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윌링던 신앙고백이 성경적 교리에서 시작하여 선교와 윤리(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가는지)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가르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수단입니다.

누구를 제자로 삼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가르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자, 모든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 모두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모든 사람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2) 교육: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동의하는 몇 가지 원칙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것만 골라내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계명을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가르치신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대체되거나, 거짓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대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순종해야 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훑어보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마태복음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교회 역사의 상당 기간 동안, 초대 교회부터 시작하여, 마태복음은 제자 양성 지침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신약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방대한 예수님의 계명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4장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이키며, 그분을 개인의 구주이자 주님으로 신뢰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혁명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다섯 가지 주요 부분이 있습니다.

1. 왕국 시민(5-7장)
2. 왕국 선교(8-10장)
3. 왕국 비유(11-13장)
4. 왕국 공동체(14-18장)
5. 왕국의 충돌(19-25장)

각 부분은 한 가르침씩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통해 제자도를 위한 교육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왕국 시민 부분에는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하며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의에 주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정결하게 행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가르침인, 튼튼한 기초 위에 삶을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인 '**왕국 선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반대자들에 대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라고 명하십니다.

세 번째 부분인 '**왕국 비유**'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살아갈 것을 명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즉시 거부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받으나 영접한 후 떠날 것이며,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땅과 같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감추어진 보물처럼, 값진 진주처럼 하나님 나라를 좇으라고 명하십니다!

네 번째 부분인 '**왕국 공동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을 갖고, 크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철저한 용서를 실천하며, 교회와 가족 관계에서 회복과 화해를 위해 노력하라고 명하십니다.

다섯 번째 부분인 '**왕국들의 충돌**'에서는 감람산 담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회상하시며 재림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준비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깨어 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품고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장 큰 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37-39

-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캐나다 에서는요." 관점을 넓히기 위해, 재세례파 운동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500년 전에 스위스 취리

히에서 몇몇 젊은 대학생들이 재세례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저는 우크라이나 자포로제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크라이나 침례교 목사님께서 제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1차 세계 대전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제국의 일부였습니다. 전쟁 중 많은 젊은이들이 러시아 군대에 복무하도록 소집되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러시아 군인들을 위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선교 목적은 병들고 부상당한 군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약 성경과 복음 자료들을 배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쟁(1918년) 후, 우크라이나 메노나이트 형제회 소속이자 엔지니어였던 제이콥 다이크는 모스크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막 선교(사진)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는 적십자사로부터 천막을 구하고 독일, 유대인,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공동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봉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 (a)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복음 전하기
- (b) 새 신자 상담하기
- (c) 성경 공부

트레이닝은 오전에, 전도는 오후와 저녁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적 비전은 러시아 군인들을 따라 집으로 가서 그들의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그들은 3일간의 캠페인을 벌여 복음을 전파하고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많은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볼셰비키 혁명(1914-1919)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극적으로 1919년 10월 26일, 제이콥 다이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포로제 근처에서 무정부주의 혁명가 네스토르 마흐노와 그의 반란군에 의해 학살되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 당시 러시아에서는 소수 민족이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제이콥 다이크와 자원봉사자들의 죽음으로 선교 활동이 끝날까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연합 신학교의 교수였던 아돌프 라이머는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는 자포로제 지역에서 살아남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격려하고, "방랑하는 성경 학교"라는 이름의 학교를 설립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양성하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쳤으며 선교 활동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러시아에 약 50만 명의 복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전쟁과 볼셰비키 혁명 후에는 약 3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엔지니어 제이콥 다이크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원심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믿는 교회의 중심에서 믿지 않는 세상으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볼셰비키 혁명 당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가능했다면, 지금이라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혹은 반대가 심한 환경일지라도, 제자를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사명의 (1) 우선순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그에 대한 (2) 교육: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3) 능력: 예수님의 임재(슬라이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대위임령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확신하며 마무리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영원한 임재에 대한 약속으로 끝맺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다른 말로 하면, "집중하라", "잘 들어라"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나 내일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잘 들어라!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은 "매일", "모든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완벽한 희생을 치르신 분,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목자이시며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와 '아멘'이 되는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히브리서 13:5)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땅 끝까지, 역사의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든, 어느 날이든, 어디서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와 매일, 어디에서나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능력을 주셨던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의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예수님의 확신, "나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우리는 그분의 용기, 지혜, 분별력, 위로, 사랑, 그리고 힘에 의지하여 제자를 삼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임재에 의지합니다.

- 다루기 힘든 아이 앞에서 우리의 화를 다스리기
- 결혼 생활의 서약을 충실히 지키기
-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에게 인내심을 갖기
- 중독 이겨내기
- 예수님의 변화시키는 사역에 대한 기쁨의 증인 되기
- 매일, 어디에서나 예수님과 함께 선교 사역에 참여하기
- 용감한 순교자가 되기

최근 중동에서 돌아온 단기 선교팀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중동 영상).

존: 최근 저희 네 명은 단기 선교팀으로 중동에서 봉사하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아론과 어니는 사역 지도자들이 지내는 안전가옥 건축에 집중했습니다. 키아나와 저는 22명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교로 인한 박해와 투옥이 흔한 나라 출신 리더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신앙 때문에 투옥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갈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를 삼는 제자로 사용하신 방법을 간략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경험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Aaron: 이 여행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박해받던 형제자매들이 보여준 기쁨과 사랑은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 신앙을 더욱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예: 치유를 간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교통 체증을 뚫고 1시간 30분씩 운전해서 밤 모임에도 기꺼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2) Ernie와 7일 동안 긴밀하게 함께 일한 것은 정말 보람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와 에너지를 유지하도록 크게 도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즉석 상담 시간에 핍박받는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는 열린 자세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니: 그곳에서 만난 분들을 떠올리면, 힘든 핍박을 겪으면서도 그분들이 보여주는 큰 기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연민이나 슬픔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은 앞으로 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존: 실질적인 위험 앞에서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신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저를 정말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심지어 발을 씻어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제 믿음도 그들처럼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들의 발치에 앉아 그들에게서 배워야 하는데, 제가 그들에게 리더십, 회복 탄력성, 중보에 대해 가르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또한 한 지도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목회적인 관리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배우고 찾는 정말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키아나: 저에게 가장 큰 감명을 준 순간 중 하나는 존 목사님이 인도하신 세션에서였습니다. 목사님은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기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현재 핍박받고 있는 한 형제님을 감동시켜 캐나다 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 편지의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캐나다에서 신앙생활은 더 쉬워 보일지 모릅니다. 자유가 있고, 교회는 열려 있고, 성경은 책장에 놓여 있고, 설교는 녹화되어 온라인으로 공유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진짜 위험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편안함 속, 무관심 속, 편안함이라는 부드러운 베개에 싸인 영적인 잠 속입니다. 조용히 우리의 믿음을 훔쳐 가고있는 위험이 그 속에 있습니다.

깨어납시다!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생활 방식이나 가르침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달읍시다. 믿음은 전쟁입니다. 믿음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존: 저희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은사와 존재를 통해 이 소중한 형제자매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는 기쁨을 경험했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이 핍박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도록 힘을 주는 걸까요? 저희에게 편지를 쓴 그 핍박받는 형제는 믿음 때문에 여러 번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썼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교회를 기도의 요새로 만듭시다. 가정을 예배의 제단으로 삼읍시다. 젊은이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생생한 이야기를 가르칩시다. 타협과 수동적인 기독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기도하고, 싸우고, 용서하고, 중보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DFM 그래픽 참조) 구경꾼이나 이용만 하는 자들 말고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과 그분의 백성(하나님의 가족)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장하면서 사명을 향해 나아갑시다. 제자를 더 많이 양성합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대로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가르침의 다섯 부분, 즉 제자 훈련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26-28장은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을 다르게 질문한다면, 왜 우리는 부활절 주일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 참으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는가?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현재 살아계시다"에 있습니다. ... 우리가 그리스도를 "역사"나 "변증론"이라는 상자 안에 미라로 보관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2천 년 전처럼 우리의 삶과 세상에 강력한 불길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이교 제국은 깨어나 주목하고, 눈을 비비고, 경이로움을 느끼며 두 번째로 회심했을 것입니다." (피터 크리스프트와 로널드 K. 타첼리, 『기독교 변증론 핸드북』, 177쪽)

부활절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십자가,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 부활하신 주님으로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그분의 지속적인 임재를 통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습니다.

다시 말해, 마태복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그 이야기 속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묵상 질문:

1.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지속적인 임재가 여러분의 증거에 어떻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제자 훈련의 여정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어떻게 격려해 주니까?
2. 오늘 여러분께서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계명이 있습니까?
3. 예수님은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까?

